

장자의 사상 분석과 경제교육적 시사점

김 상 규*

【요약문】 본 연구는 경제에 관한 철학과 원리의 유효성이 모두 비판받고 있는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에 대처할 대안으로 장자(莊子)의 사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집중·분석하고 경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 불확실성의 경제상황이 장자가 처했던 전국시대(戰國時代)와 매우 닮았으며, 당시 장자의 사상은 충분히 진가(眞價)를 발휘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잘 농축되어 있는 장자의 사상을 현대 경제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경제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주제어】 불확실성, 장자의 사상, 경제교육적 시사점, 학제 간 연구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skkim@dnue.ac.kr)

I. 머리말

오늘날 대내외 경제여건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다자(多者)질서의 쇠퇴, 기후변화 등에 의해 오리무중(五里霧中), 암중모색(暗中摸索)의 불확실성(uncertainty)의 경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미·중 간 무역 갈등, 유로존·일본·남미 등 세계적 경제성장의 둔화 및 지속으로 매우 혼란한 경제상황에 처해있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저성장, 저고용, 복지 및 분배욕구의 분출, 고령화, 북핵 위기 등 대단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잘 농축되어 있는 장자의 사상을 현대 경제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추구함으로써 창의성의 증대 및 초불확실성의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 장자는 전쟁과 살육,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기원전 4세기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인위(人爲)와 작위(作爲)를 중시하던 유가(儒家) 사상가들과 맞서 노자와 함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부르짖으며 여러 현안문제의 타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그의 사상을 집중 조명하여 경제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장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장자의 생애와 사상, 학제적 연구의 가치 탐색 등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제1절에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 분석과 시장경제의 시사점을 탐색하고, 제2절에서는 사유(思惟)와 혁신(革新)의 창조적 자유의 분석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며, 제3절에서는 인위(人爲)와 작위(作爲) 등 규제 배제 분석과 경제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한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맺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자의 생애와 사상

장자(莊子, 기원전 369년?-기원전 286년)는 몽(蒙) 사람이고, 이름은 주(周)이다. 일찍이 몽(蒙) 땅 칠원(漆園) 고을의 관리였다. 양(梁) 나라 혜왕(惠王)과 제(齊) 나라

선왕(宣王) 때 사람으로 그의 학문은 박학하였고, 그의 사상의 요체는 본래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장자가 살던 기원전 4세기의 전국시대(戰國時代)는 전쟁과 살육,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시대였다. 장자의 고향인 송나라는 옛날부터 4전지(四戰之地)라고 불렸을 만큼 사방으로 적을 맞아 싸워야 했고, 사방으로부터 전화(戰禍)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약한 나라의 가혹한 현실은 인간 부자유의 극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자는 현실에 대한 회의, 유가의 인위(人爲)·작위(作爲)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그것을 이어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그것을 잘라주면 그들을 해치게 되듯이 지식에 입각한 행위는 자연을 훼손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장자는 BC 290년경에 『장자(莊子)』를 저술했다. 이것은 원래 52편이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진대(晉代)의 곽상(郭象)이 불필요한 자구(字句)나 문장을 지우고 고친 33편(내편 7, 외편 15, 잡편 11)으로, 이 중 내편이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한다. 내편의 7장은 많은 부분이 장자 본인의 저작으로 여겨지고 있고, 외편과 잡편은 후대의 인물들이 쓴 것으로 추정한다. 노자의 『도덕경』과 비교해 볼 때, 『도덕경』은 간결한 단어와 문구로 주로 사상을 해설한 것이지만, 장자의 『장자』는 풍부한 우화와 각종 비유로 자신의 사상을 설명한 것이고, 분량에서도 노자의 『도덕경』보다 20배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는 해학가(諧謔家)로서 인생과 우주 일체를 소리 높여 흥소(哄笑)한다. 그는 해학을 가지고 일체를 목살하면서 상식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가치에 배반하여 돌아서는 것은 물론, 상식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응졸함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뒤틀린 왜소함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딱하게 여긴다. “그가 쓴 십만 여 자(字)에 이르는 저서의 대부분 내용은 우언(寓言)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부(漁父)」, 「도적(盜蹠)」, 「거협(胠篋)」을 지어 공자 무리를 호되게 비판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밝혔다. 「외루허(畏累虛)」, 「항상자(亢桑子)」 같은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이야기로서 사실이 아니다. 그는 글을 잘 짓고 문장 분석력이 뛰어났고, 상황에 맞게 적합한 비유로 유가와 묵가를 예리하게 비판했다. 그의 말은 거센 물결처럼 거침이 없이 생각대로 펼쳐졌으므로 왕공으로부터 대인에 이르기까지 박학한 이들도 그의 공격을 벗어나지는 못했다(사마천, 『사기』, 「노장신한열전」).

그는 벼슬에도 초연했다. 『장자』, 외편, 「추수(秋水)」편에는 관련 일화가 잘 전해진다. 혜자가 양나라의 재상이었을 때, 장자가 그를 찾아가 만나려 했다. 그런데 어

편 이가 혜자에게 ‘장자가 와서 당신 대신 재상이 되고 싶어 한답니다.’고 했다. 이에 혜자는 그만 두려워서 사흘 밤낮 동안 온 나라 안을 살살이 뒤져 그를 찾게 했다. 장자는 이 사실을 알고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쪽에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원추라 한대요. 당신은 그걸 아시오? 대체로 원추는 남해에서 출발하여 북해로 날아가지만,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멸구슬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소.”(장자, 제27편, 추수). 이렇듯 그는 재상직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친구 혜자에게 원추의 우화를 빌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세속적인 명성을 아득히 초월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그의 벼슬에 대한 관점과 정신세계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장자의 사상은 도(道)로 압축된다. 그는 “도를 얘기한다지만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노자, 제1장, 체도)라고 말한 노자의 노선을 따른다. 절대 진리는 말이나 문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장자는 노자(老子)와 마찬가지로 도(道)를 천지만물의 근본원리라고 본다. 도는 일(-)이며 대전(大全)이므로 그의 대상이 없다. 도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으므로 무위(無爲)하다. 도와 일체가 되면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볼 수 있다. 인간은 도(道)와 하나가 됨으로써 자연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천지만물과 자아 사이의 구별이 사라진 지인(至人)이라야 누릴 수 있다. 이 지인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천지만물들과도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다. 도는 스스로 자기존재를 성립시키며 저절로 움직이므로 친자연적(親自然的)이고,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거미·가라지·기왓장·똥·오줌 속에도 있다고 역설했다. 일종의 범신론(汎神論)이다.

도가 개별적 사물들에 전개된 것을 덕(德)이라고 한다. 도가 천지만물의 공통된 본성이라면 덕은 개별적인 사물들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도 덕이다. 이러한 덕을 회복하려면 습성에 의하여 내면화된 심성(心性)을 잘 닦아야 한다. 덕을 회복하게 되면 도와 간격 없이 만날 수 있다. 다만 한쪽만을 절대시하는 독선에 빠지지 않고 양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분별지(分別知)를 초월해야 하며, 고요 속에 머무는 좌망(坐忘)과 마음을 비우는 심재(心齋)의 태도가 필요하다. 나를 잃어버린 상태(吾喪我)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유롭게 노닐다 보면 그것이 곧 양생이 되고, 처세의 도가 된다.

이처럼 그는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역설했다. 그러나 노자의 ‘무위자연’과 장자의 ‘무위자연’은 그 개념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노자의 ‘무위(無爲)’

는 외물(外物)을 대상으로 논위(論謂)되는데 반해 장자의 ‘무위(無爲)’는 내심(內心)의 문제로 파고들어간다. 따라서 노자에 있어서의 처세 보민(處世保民)에 대한 관심(知足·知止)은 장자에 있어서는 지인(至人)·진인(真人)이라는 것의 형성(忘生·忘身)으로 바뀐다. 결국 노자·장자 사상의 차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노자에게는 아직도 현실세계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처세적 경향이 강한데 비해, 장자가 바란 바는 인간 사회의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解脫)하여 절대 자유의 정신을 찾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였다고 할 수가 있다(안동림 역주, 장자, 1997, p. 20).

또 장자는 그의 사상을 대부분 우언(寓言)으로 풀이했다. 근본은 노자(老子)의 무위자연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지만, 현세와의 타협을 배제하는 점에서는 더욱 철저하다. 바로 그와 같은 면에서 체면이나 관습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였던 장자의 분방(奔放)한 세계가 펼쳐진다. 이러한 장자 사상은 위진현학(魏晉玄學)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남북조 시대에 성행한 반야학(般若學)과 당나라 때 융성한 선종(禪宗)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선사들의 근본 통찰이 노장(老莊) 사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은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1장과 제2장은 바로 선의 철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선(禪)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존재의 속알맹이를 똑바로 꿰뚫어보는 내적인 자각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이 속안의 깨침은 장자가 말한 이른바 ‘마음을 맑게함’(心齊)이나 ‘마음을 잊음’(좌망:坐忘) 또는 ‘아침처럼 맑음’(朝徹)에 해당한다.”(류시화 역, 선의 황금시대, 2012, p. 22).

나아가 장자의 초탈사상은 자연주의 경향이 있는 문학·예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에 이단(異端)으로 배척되기도 하였으나 산림(山林)의 선비들과 문인들이 그 문장을 애독하였다. 장자 사상이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당대 사상가들이 대부분 지배 계층과의 대담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로 풀어나간 데 비해, 그는 동물, 자연물, 또는 이름 없는 민중이나 하급 관료와의 대화 등을 이용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2. 학제적 연구의 가치 탐색

장자는 중국사상(中國思想)의 여명기인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노자의 뒤를 이어 도(道)를 주창했다. 도가(道家)는 도(道)란 인위(人爲)를 초월한 곳에 있으며 그것은 직관에 의해 체득되는 것으로 사람은 무위자연의 참된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도가사상은 현실 부정적·도피적인 성향 때문에 하층

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후 도교로 발전했고, 민간신앙과 철학적 사고의 원천이 되었다. 또 지배층에 대항하는 피지배자의 사상을 대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세 중국 불교에 수용되었고, 도교(道敎) 교리의 형성을 도왔으며, 문예(文藝) 발달의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무한경쟁·무국경의 지구촌 시대, 상상력과 창의성이 긴요하게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본 연구는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이제 학제 간 연구(學際間 研究)는 시대적 요청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술과 경영, 과학과 철학, 의학과 공학, 문화와 경제, 기술과 예술 등 통합을 내세우는 학문간의 세분화와 다양한 형태의 학문간 이종교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제간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성, 새로운 시각 및 차별화된 연구문제 제시의 요건이 요구된다.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며 성공한 것은 대중문화의 흐름을 살피는 깊은 통찰력으로 첨단기술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 인문학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학문적 지식들이 자유롭게 상호 교류해 궁극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21세기 학문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제도와 관습, 문헌과 구전, 사실과 작품 등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함께 다루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김상규, 2017, p. 17).

장자의 도가사상(道家思想)은 민간 신앙과 융합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지나친 정치의 형식화나 사회의 예교화를 막아, 정치나 사회를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주는 것은 물론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예술정신의 극치에 이르도록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고의 장자 사상의 현대 경제교육적 시사점 탐색은 인문학과 경제학의 융합으로 창의성의 증대 및 초불확실성의 상황에 대한 대처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하겠다.

Ⅲ. 장자의 사상 분석과 경제교육적 시사점 모색

1.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 분석과 경제교육적 시사점

1)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 분석

무위(無爲)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사람의 지혜나 힘을 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자연(自然)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지면 자연에 맡겨 부질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본디그대로의 자연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이다. 이에 대해 장자는 어떠한 견해를 피력했을까?

먼저, 장자의 ‘무위자연’과 관련한 도(道)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자.

“도는 늘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道常無爲, 而無不爲. 노자, 제37장, 위정).

도란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이를 잃으면 죽고 얻으면 살며 일을 할 때 이를 거역하면 실패하고 순응하면 성공한다. 때문에 도가 있는 곳을 성인은 존중한다(且道者, 萬物之所由也. 庶物失之者死, 得之者生, 爲事逆之則敗. 順之則成. 故道之所在, 聖人尊之. 장자, 제31편, 어부).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호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느슨한 듯하면서도 일을 잘 도모한다. 하늘의 땅은 광대하고 성근 듯하면서도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天之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 繹然而善謨. 天網恢恢. 疎而不失. 노자, 73장, 임위).

성인은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그것을 모두 남을 위해 쓰지만 자기는 더욱 많이 갖게 된다. 그것을 모두 남에게 주지만 자기는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해주지만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도는 일을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聖人不積, 既以爲人, 己愈有. 既以與人, 己愈多. 天人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 노자, 제81장, 현질).

이처럼 그는 도(道)가 무위자연과 직결됨을 역설했다. 왜냐하면 도(道)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걸치레나 외물에 신경 쓰는 것 없이도 그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며, 자연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자의 ‘무위자연’과 관련한 본성(本性)의 견해를 살펴보자.

천하를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천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까닭은 천하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을 어지럽힐까 염려해서이고, 놓아두는 까닭은 천하 사람들이 타고난 덕을 바꿀까 염려해서이다(聞在宥天下, 不聞治天下也 在之也者. 恐天下之淫其性也. 宥之也者. 恐天下之遷其德也. 장자, 제11편, 재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서로 떨어지지 않고 본성을 따르면 마음의 번거로움이 없다(緣則不離. 率則不勞. 장자, 제20편, 산목).

천하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고 자신의 덕을 바꾸지 않는다면 (따로 특별히) 천하를 다스릴 일이 있겠는가.....편안하지 않고 즐겁게 하지 못한 것은 타고난 덕이 아닌데 타고난 덕이 아니어서 길고 오래될 수 있는 경우는 천하에 하나도 없다(天下不淫其性, 不遷其德, 有治天下者哉...夫不恬不愉, 非德也. 非德也. 而可長久者, 天下無之. 장자, 제11편, 재유).

참된 본성이란 하늘에서 받으며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바꿀 수가 없다. 때문에 성인은 하늘에 따르고 참된 본성을 존중하며 세속 따위에 구애되지 않는다(眞者, 所以受於天也. 自然不可易也. 故聖人法天貴眞, 不拘於俗. 장자, 제31편, 어부).

위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장자는 본성(本性)이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직결됨을 역설했다. 왜냐하면 본성이란 사람의 타고난 성질, 천성(天性)으로, 걸치레나 외물에 신경 쓰는 것 없이도 그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며, 자연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장자의 ‘무위자연’과 관련한 무위(無爲)의 견해를 살펴보자.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고 대성인(大聖人)은 작위(作爲)가 없으며 천지를 달관했다(至人無爲, 大聖不作, 觀於天地之謂也. 장자, 제22편, 지북유).

군자가 어쩔 수 없이 천하에 군림하게 된다면 무위(無爲)가 제일이다. 무위여야만 그 후에도 본래의 자연스런 상태에 편안히 머물게 된다(君子不得已而臨莅天下. 莫若無爲. 無爲也. 而後安其性命之情. 장자, 제11편, 재유).

유유히 노닐며 아무 작위(作爲)가 없고 검소하면 보양(保養)하기가 쉽다(逍遙

無爲也, 苟簡易養也, 不貸無出也. 古者謂是采眞之遊. 장자, 제2편, 천운).

제왕의 덕이란 천지를 근본으로 삼고, 도덕을 중심으로 알며, 무위를 불변의 도리로 여긴다. 오직 무위해야만 만물이 자연히 성장하고 천하가 돌아와 복종하며, 재물이 넉넉해진다(帝王之德, 以天地爲宗. 以道德爲主. 以無爲爲常. 無爲也, 則用天下而有餘. 장자, 제13편, 천도).

모든 일은 자연에 따르게 하고, 사심(私心)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진다(順物自然, 而無容私焉. 而天下治矣. 장자, 제7편, 응제왕).

옛날 사람은 혼돈 속에 있으며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고요함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는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서 언제나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古之人在混茫之中, 與一世而得澹漠焉.…… 當是時也, 莫之爲而常自然. 장자, 제16편, 선성).

훌륭한 왕의 정치란 그 공적이 온 세상에 미치면서도 자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하고, 만물에 교화(教化)를 베풀지만 백성은 (별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明王之治, 功蓋天下. 而似不自己, 化貸萬物, 而民不恃. 장자, 제7편, 응제왕).

위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장자의 무위(無爲)는 노자의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의 세계인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직결됨을 역설했다. 왜냐하면 무위(無爲)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사람의 지혜나 힘이 더해지지 않는 것으로, 겉치레나 외물에 신경 쓰는 것 없이도 그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며, 자연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2)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의 경제교육적 시사점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은 ‘자연에 맡겨 부질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나 힘이 더해지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자연’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노장사상(老莊思想)의 중심 개념으로, 힘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며,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라는 뜻이다. 이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하고, 문명을 거부한 깊은 산 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위자연(無爲自然)에서 자연(自然)은 ‘nature’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건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냥 두라는 말이며, ‘도는 늘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道常無爲, 而無不爲. 노자, 37장, 위정), “최상의 훌륭한이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의 훌륭한은 만물을 이롭게 해 주면서도 다투지 않는다.”(上善若水. 水善, 利萬物而不爭. 노자, 제8장, 역성)는 뜻이다.

특히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은 다음에 제시한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 사상과 적극 부합하여 오늘날 시장경제교육에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

인간은 늘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도움을 남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남의 이기심을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롭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타인에게 어떤 종류의 흥정을 신청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한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든 신청의 취지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호의를 서로 주고받는다(Smith, 1776, p. 26).

우리가 우리의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도 없고, 그가 얼마나 공익을 증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각 개인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각 개인이 그 목적달성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하지도 않다. 각 개인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보다, 자신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다(Smith, 1776, p. 26).

결국 장자의 ‘무위자연’ 사상이나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원리는 인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행위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시장경제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어느 누구의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동 조절되어지며,

이것은 순리(順理)를 좇는 ‘무위자연’의 이치와 적극 부합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환질서는 자연스럽게 가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격은 서로 평화롭고 협력하게 만든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환이 자발적이고, 그 교환에서 이익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경우 두 주체 간의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매매자의 자발적 상호작용으로 가격은 수백, 수천만 명의 활동을 조정하고, 각 개인에게 극대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장자의 ‘무위자연’의 시장경제 사상은 개별경제주체에 대한 효율성의 제공은 물론 국가의 부의 증대에도 적극 기여할 수가 있다. ‘정부주도의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손상시킴으로써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단 장자의 시대에서나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는 ‘시장의 실패’가 문제시될 만큼의 경제상황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위자연’의 자연법칙 중시의 시장경제를 역설한 장자의 경제 사상은 자본주의경제의 핵심사상으로서 2천 3백여 년 전 선각자적 예지가 더욱 돋보인다고 하겠다.

2. 창조적 자유의 사상 분석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사점

1) 사유의 창조적 자유 사상 분석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사점

(1) 사유의 창조적 자유의 사상 분석

오늘날 전 세계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으로 특징지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전개되고 있다. 기존의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치고 있고,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고 있다.

이렇게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2300여 년 전 전국시대의 대혼란기에 사유의 창조적 자유를 역설한 장자의 사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한 장자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대붕도남(大鵬圖南)’의 사례>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鯀)이라 하였다. 곤의 길이는 몇 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봉(鵬)이라 하는데, 봉의 등도 길이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이 떨치고 날아오르면 그 날개에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도 같았다. 이 새는 태풍이 바다 위로 불면 비로소 남쪽 바다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남쪽 바다란 바로 천지(天地)이다(北冥有魚, 其名為鯀 鯀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為鳥, 其名為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장자, 제1편, 소요유).

<‘호접지몽(蝴蝶之夢)’의 사례>

언제인가 장주(장자)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나는 것이 확실히 나비였다. 스스로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장주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얼마 후 문득 꿈에서 깨어 보니 자기는 틀림없이 장주였다. 장주가 나비 된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구분이 있을 것이니, 이를 일러 만물의 변화라고 한다(昔者 莊周爲蝴蝶 栩栩然蝴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蝴蝶與, 蝴蝶之夢爲周與. 周與蝴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 장자, 제2편, 제물론).

<‘모장과 여희의 우화’ 사례>

모장이나 여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는 그녀들을 보면 물 속 깊이 들어가고, 새는 그녀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는 그녀들을 보면 후다닥 달아난다. 이 네 가지 것들은 누가 천하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가?(毛嬙麗姬, 人之所美也, 魚見之深入, 鳥見之高飛, 麋鹿見之決驟 四者孰知天下之正色哉?, 장자, 제2편, 제물론).

<‘이것과 저것의 구분’ 사례>

사물은 저것(彼)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是) 아닌 것도 없다.(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저것이라고 한다면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를 이것이라고 본다면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物無非彼,

物無非是. 自彼則不見, 自知則知之. 故曰: 彼出於是, 是亦因彼. 장자, 제2편, 제물론).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사례>

헛되이 애를 써서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내세우면서 실은 모두가 하나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조삼(朝三)이라 한다. 조삼이란 무엇인가? 원숭이 부리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상수리를 나누어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래서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다.»하니까 원숭이들이 모두 좋아했다. 명칭(표현)도 내용(실질)도 변함이 없는데 기쁨과 노여움이 일게 되었다. 「그것은 시비에 구애되기 때문이다.» 역시 자연그대로의 커다란 긍정에 몸을 맡기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시비를 조화시키고, 자연의 균형(天鈞)에서 쉰다. 이러한 것을 양행(兩行: 대립된 두 쪽이 다 순조롭게 뻗어 나가는 입장)이라고 한다(勞神明爲一, 而不知其同也, 謂之朝三. 何謂朝三. 曰. 狙公賦茅曰. 朝三暮四. 衆狙皆怒. 曰. 然則朝四暮三. 衆狙皆悅. 名實未虧而喜怒爲用. 亦因是也. 是以聖人和之以是非, 而休乎天鈞. 是之謂兩行. 장자, 제2편, 제물론).

(2) 사유의 창조적 자유사상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사점

앞 절에서 살필 수 있듯이 모든 의견은 결국 각자의 견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장자는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상대주의’ 또는 ‘시각주의(perspectivism)’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대붕도남(大鵬圖南)>에서 장자는 곤(鯁)과 봉(鵬)처럼 이상을 품은 자연주의 사상가로,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그대로를 존중하고, 자연그대로를 평가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였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 높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원대한 꿈을 갖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도가사상의 정립에 큰 기여를 했고, 자연주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호접지몽(蝴蝶之夢)>에서 장자는 장주와 나비는 분명 별개의 사물이지만, 물아의 구별이 없는 만물일체의 절대 경지에서 보면 장주도 나비도 꿈도 현실도 구분이 없으며, 다만 있는 것은 만물의 변화일 뿐이며, 모든 사물은 상대성을 지닌다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강조하였다. 결국 그는 절대적인 경지에서 보면 옳음(是)도 무궁한 변화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름(非)도 무궁한 변화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밝은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모장과 여희의 우화>에서 장자는 아름답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상식적인 사고방식에 의문을 품고 유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가르침 따위는 하잘 것 없는 것이고, 지극한 사람은 이해(利害)를 초월한 자임을 역설했다.

<이것과 저것의 구분>에서 장자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으로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에 대한 구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물은 저것(彼)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是) 아닌 것이 없음을 역설했다. 저것(彼)과 이것(是)이 상호 간에 성립한다는 주장은 논리학자(論理學者) 혜시(惠施)의 주장으로 저것(彼)과 이것(是)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기준에 따라 때로 저것이 이것으로 되기도 하고 이것이 저것으로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저것과 이것은 상호규정적(相互規定的)으로 성립하는 상대적 개념임을 역설한다.

<조삼모사의 사례>에서 장자는 사물의 명칭을 비롯하여 사람은 사물을 구별하기를 좋아한다고 역설한다. 구별한다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확실히 필요하나 지나치게 구별하다 보면 자연히 조화를 깨뜨리는 결과가 된다. 구별이란 애초 인위적인 것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는 견해의 차가 생긴다. 즉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사물에 대해 견해차가 생긴다. ‘조삼모사’ 이야기도 전체의 조화이며, 자연의 모습으로 보려는 것이 장자의 입장이다.

그는 결국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고, 부자유의 자유를 필사적으로 추구했으며, 상대주의 또는 시각주의에 집중했다. 따라서 이러한 장자의 사유의 창조적 자유사상은 융합적 사고와 실천이 적극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가정신에 대해 큰 기여가 기대된다 하겠다.

2) 혁신의 창조적 자유의 사상 분석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사점

(1) 혁신의 창조적 자유의 사상 분석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Schumpeter)는 경제발전의 요체는 제도나 방법, 조직·풍습 따위를 버리고 새롭게 하는 혁신(innovation)에 있으므로, 이것에 적극 매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혁신의 요소로 새로운 제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원료나 부품의 공급, 새로운 조직의 형성,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지적했다(Schumpeter, 1942, p. 83). 이것에 적극 매진하는 자

가 바로 기업가이며, 그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의 주체로”(Schumpeter, 1942, p. 83), 기업의 이윤 창출, 미래에 대한 통찰력 및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자로, 그러한 정신이 바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기원전 4세기의 전국시대에 비견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당대 큰 해안을 제시했던 장자의 사상을 분석하여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그와 관련된 그의 견해를 살펴보자.

<‘포정해우(庖丁解牛)’의 사례>

포정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해 소를 잡은 일이 있었다. 손을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짓누르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 따라 (소의 뼈와 살이 갈라지면서) 서걱서걱, 빠극빠극 소리를 내고, 칼이 움직이는 대로 짹짹 울렸다. 그 소리는 모두 음(音)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고, 은나라 탕왕 때의 명곡인 ‘상림(桑林)의 춤’에 합치되었으며, 그 중에는 요(堯)임금 때의 명곡인 ‘경수(經首)의 운율’에도 맞았다. 문혜군이 말하기를: “아, 훌륭하구나! 기술도 어찌하면 이런 경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포정이 칼을 놓으면서 대답하기를: “신이 좋아하는 것은 도(道)이며, 기술(재주)보다 더 우수한 것입니다.…… 문혜군은 말했다. “ 훌륭하구나.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養生)의 도(참된 삶을 누리는 방법)를 터득했다.”(庖丁爲文惠君解牛. 手之所觸, 肩之所倚, 足之所履, 膝之所踞, 砉然響然, 奏刀騞然, 莫不中音,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文惠君曰: "誦. 善哉. 技蓋至此乎. 庖丁釋刀對曰: "臣之所好者道也, 進乎技矣."……文惠君曰: "善哉. 吾聞庖丁之言, 得養生焉". 장자, 제3편, 양생주).

<‘구루자가 매미 잡는 고사’의 사례>

중니(仲尼·공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숲 속을 통과하는데 한 뽕추가 마치 줍듯이 쉽게 매미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중니가 물었다. “당신은 솜씨가 좋군요. 비결이 있나요?” 뽕추가 대답했다. “비결이 있지요. 대여섯 달 동안 장대 끝에 공을 두 개 겹쳐놓고 떨어지지 않게 되면 매미를 잡을 만하지요. 실패할 때가 적게 됩니다.”……공자는 제자들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뜻을 한데 모아 마음이 흩어 지지 않으면 곧 신과 같아진다지만, 그것은 저 뽕추노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게다.”(仲尼適楚, 出於林中. 見痾僂者承蝸, 猶掇之也. 仲尼曰, 子巧乎? 有道邪? 曰, 我有道也. 五六月累丸二而不墜. 則失者錙銖……孔子顧謂弟子曰, 用志不分. 乃凝於神. 其痾僂丈人之謂乎. 장자, 제19편, 달생).

<재경(梓慶)이라는 목수의 악기 만들기' 사례>

재경(梓慶)이라는 노(魯) 나라의 목수가 나무를 깎아 거(鑿: 악기의 한 종류)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면서 귀신같다고 했다. 노나라 임금이 보고 물었다. “그대는 무슨 비술(秘術)로 만들었는가?” 이에 재경은 답했다. “신은 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비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이 거를 만들려 할 때는 감히 심기(心氣)를 소모시키지 않고 반드시 재계(齋戒)하여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이렇게 하면 나무의 자연스런 본성과 제 자연스런 본성이 하나가 됩니다. 기물(器物)이 귀신같다고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梓慶削木爲鑿 鑿成 見者驚猶鬼神 魯侯見而問焉曰 子何術以爲焉 對曰臣工人 何術之有 雖然有一焉 臣將爲鑿 未嘗敢以耗氣也 必齊以靜心.……然後成見鑿 然後加手焉 不然則已 則以天合天 器之所以疑神者 其由是與. 장자, 제 19편, 달생).

(2) 혁신의 창조적 자유 사상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시사점

앞 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장자는 혁신의 창조적 자유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포정해우'의 사례>에서 장자는 포정이 소를 잡으면서 도달한 자유의 경지는, 실질상에 있어서는 심미적(審美的) 경계(境界)라고 강조한다. 포정해우(庖丁解牛)란 포정(백정)이 신기(神技)에 가까운 솜씨로 소의 뼈와 살을 발라낸다는 뜻으로, 장자는 포정(백정)의 기술의 묘(妙)를 강조한다. 지극한 정성은 신기(神技)를 만든다. 포정이 문혜왕을 위해서 소를 잡을 때, 뼈와 살이 다치지 않도록, 사물의 급소를 잘 찌르고, 요점을 잘 찾아내는 것을 ‘궁경에 닿다’라고 표현한다. ‘궁(肯)’은 뼈에 붙은 살이고, ‘경(緊)’은 뼈와 살이 이어진다는 뜻으로, 사물의 핵심이나 일의 관건이 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포정이 소를 잡는 데는 칼 놀림에 여유가 있었고, 19년을 소를 잡고도 칼날이 마치 새로이 솟돌에서 갈아낸 것과 같은, 고도로 자유로운 경지에 다다라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고기를 가르는 칼 소리가 마치 울리는 듯하고, 칼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그 중 어떤 것도 음(音)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며, ‘상림(桑林)의 무(舞)’에 합치되고, 그 중에는 ‘경수(經首)의 회(會: 운율)’가 있었다.”라고 한 것은, 포정이 소를 잡는 것은 음악과 무도의 절주와 부합하는 것이며, 이미 심미적 경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포정이 소를 잡는 중에서 얻었던 쾌락은, 공전(公田)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자신이 획득

한 혁신의 창조적 자유(創造的自由) 때문이었다.

<구루자가 매미 잡는 고사>와 <재경 목수가 악기 만들기 고사>에서 장자는 고사 속의 인물들의 몹시 고된 훈련 과정과 실천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들의 장기적 연마와 실천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장인(匠人)의 경지에 도달토록 했다. 이 같은 자유는 합규율성과 합목적성의 통일이고, 진(眞)과 선(善)의 통일이며, 진정한 창조적 자유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실천 중에 도달한 자유의 경계 역시 심미적 경계를 표명한 것이다. 사람은 노동창조의 실천 활동을 통하여 사람 자신을 포괄하는 외재세계를 개조하고, 외재세계가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며, 만드는 물건을 자신을 위하는 물건으로 변화시킨다. 사람은 이런 자유의 경계 중에서 자기를 긍정(肯定)하고, 자기를 원래대로의 상태로 드러나게 한다. 자기의 주관을 떠나 냉정히 응시하고, 자기의 창조역량을 알고,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까닭에, 장자의 이런 우언(寓言) 고사(故事)는 역대로 무수한 문학과 예술가의 주의를 끌었다. 이들 고사에 잘 보존되고 있는 창조적 자유는 우리가 미의 규율과 예술창조의 규율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영향도 매우 깊고 크다.

더욱이 <‘포정해우’의 사례>, <구루자가 매미 잡는 고사> 및 <재경 목수가 악기 만들기 고사>에서 주목할 점은 ‘창조적 자유’의 수행자 모두는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정신작용을 통해 물질적·문화적 가치를 분석·종합·판단하여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창조적 자유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어들였다는 점이다.

결국 이상에서의 혁신의 창조적 자유의 사례는 자기 자신의 일체의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무심망아(無心忘我)의 심경을 터득하여 천지자연에 순응할 때 이러한 신기를 터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리심으로 여래를 보는 해탈의 경지이다. 이러한 혁신의 창조적 자유는 기술진보의 모체가 되고, 생산성 향상과 연계되며, 경제성장 및 발전의 촉진제가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빅 데이터·사물인터넷(IoT)·무인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장자의 혁신(innovation)의 창조적 자유의 적용·검토는 그것이 기술진보와 직결됨은 물론, 노동생산성의 증가, 효율성의 증가, 1인당 산출량의 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3. 규제 배제의 분석과 경제교육적 시사점

1) 장자의 인위(人爲) 사상의 분석과 경제교육적 시사점

(1) 장자의 인위(人爲) 사상의 분석

장자는 인위(人爲)를 적극 비판하고 배제할 것을 역설했다. 그는 도리에 어긋나고 인간의 독단적인 지혜 따위가 판을 치며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획일적인 사회를 혐오했으며, 설혹 어쩔 수 없이 천하에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경우에라도 인지(人智)를 배격하고 무위(無爲)를 존중했다. 왜냐하면 인위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 인공을 의미하고, 자연·천연·천위(天爲)와 상반되며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자.

자연이 먹여 살리는데 어찌 또 인위(人爲)가 필요하랴(既受食於天. 又惡用人. 장자, 제5편, 덕충부).

천하에 꺼리고 금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天下多忌諱, 而民彌貧. 노자, 57장, 순풍).

성스러움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내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은 백 배로 늘어날 것이다(絕聖棄智, 民利百倍. 노자, 제19장, 환순).

덕은 명예심 때문에 녹아 없어지고, 지식은 경쟁심에서 생긴다. 명예란 서로 혈뜬는 것이며, 지식이란 다투기 위한 도구이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흉기여서 두루 순조롭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德蕩乎名, 知出乎爭. 名也者相軋也. 知也者爭之器也. 二者凶器, 非所以盡行也. 장자, 제4편, 인간세).

<변무(駢拇)의 우화>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과 붙어 있는 변무나 육손이는 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이라 해도 정상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군더더기다. 사마귀나 늘어진 혹은 몸에서 나왔다고는 해도 인간의 본성에서 보면 군더더기다. 어짊과 의로움(仁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의

오장(五臟)이나 같은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의 올바른 형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발가락이 달라붙은 것은 쓸데없는 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손에 육손이 달린 것은 소용없는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다. 오장의 자연스런 모습에 굳어지기를 덧붙이면 인의(仁義)행위에 치우쳐서 눈과 귀의 작용을 갖가지로 혹사하게 된다(駢拇枝指, 出乎性哉, 而侈於德, 附贅縣疣, 出乎形哉. 而侈於性. 多方乎仁義而用之者, 列於五藏哉! 而非道德之正也. 是故駢於足者, 連無用之肉也. 枝於手者, 樹無用之指也. 多方駢枝於五藏之情者, 淫僻於仁義之行, 而多方於聰明之用也. 장자, 제8편, 변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자는 유가(儒家)의 인의(仁義)는 대표적인 인위(人爲)로써, 인간의 기준이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제단하고 평가하여 멀쩡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음을 역설했다. 이것은 결국 타인의 강제는 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국가의 강제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변무의 우화>는 인의(仁義) 존중에 매몰돼있는 유가에 대해 비꼬고 빗대면서 시비를 거는 걸작의 우화이다.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는 변무(駢拇)와 같다.

(2) 장자의 작위(作爲) 사상의 분석

장자는 마음먹고 벌인 짓이나 행동인 작위(作爲)가 그가 적극 강조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비판하고 배제할 것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자.

유위는 정신과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세상을 혼란케 하며,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有爲也, 則爲天下而不足, 장자, 제13편, 천도).

지나침이란 필요 없는 것을 덧붙임이며, 명령을 고치거나 애써 성공하려 함은 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므로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다(過度益也. 遷令勸成殆事. 美成在久, 惡成不及改, 장자, 제4편, 인간세).

고요하면 작위가 없고, 작위가 없으면 일을 맡은 자가 각기 책임을 다한다. 또 작위가 없으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걱정거리가 깃들 수 없으며,

수명도 길어진다. 대저 무심의 고요함으로 안정을 지키고 그윽한 적막에 있으며 작위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만물의 근본이다(靜則無爲, 無爲也, 則任事者責之本也. 無爲則兪兪, 兪兪者憂患不能處, 年壽長矣. 夫虛靜恬淡寂寞無爲者, 萬物之本. 장자, 제13편, 천도).

<혼돈 칠규의 우화>

남해의 임금을 숙(儻)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흘(忽)이라 하며 혼돈(渾沌)은 그 중앙의 임금이었다. 숙과 흘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때마다 그들을 융숭히 대접했다. 이에 숙과 흘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할 의논을 했다. “사람은 각자 일곱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혼돈에게만 그런 구멍이 없다. 어디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는데, 7일이 지나자 혼돈이 죽고 말았다.(南海之帝爲儻,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渾沌. 儻與忽, 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儻與忽謀報渾沌之德. 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 장자, 제7편, 응제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자는 작위(作爲)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코 그대로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 사람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어 위기로 빠뜨리는 행위로, 결코 옳지 않음을 역설한 것이다. <혼돈 칠규의 우화>에서 혼돈(渾沌)이 칠규(七竅) 때문에 죽게 됐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인간적인 유위(有爲)의 행동이 자연의 순박함을 파괴하게 됐음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으로 『장자』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우화이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과 잘 부합한다.

2) 장자의 인위(人爲)와 작위(作爲)의 경제교육적 시사점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자는 유가(儒家)가 내세우는 인의예악(仁義禮樂)의 가르침이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에 쓸데없는 여분의 것이며 참된 삶을 해치는 허식·오만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리하여 그는 억지로 무엇을 하지 말고 순수하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無爲自然’의 삶이 최고임을 설파했다. 그는 잘하고자 한 일이 오히려 탈이 되고 흉이 되어 험한 꼴을 당하고 사는 문명 세계를 우화로 비판했고, 생긴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무위자연이 최선임을 역설했다. 조직의 요구에 맞춰 타인의 삶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

다. 사람만 편히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문명의 공장에서 굴뚝이 뿜어내는 독한 연기가 곧 숙과 흠이 뚫어 준 구멍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그는 무위자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법률이나 도덕규범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거기에 꿰맞추려는 유위(有爲)의 정치를 배격한다. 그는 요순(堯舜) 때는 무위(無爲)로도 나라가 잘 다스려졌는데, 우(禹) 임금 때가 되자 유위(有爲)로 혼란을 자아냈기 때문임을 비판하면서 백성이 자연스런 본성대로 살면서 자연의 도(道)와 일치하도록 하는 무위자연의 정치를 강조한다. 무위자연의 정치란 만물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그 본성을 이지러뜨리는 어떤 간섭도 가하지 않는 자유방임하는 정치이다. 무위자연의 정치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유위(有爲)의 정치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노자는 “인위로 다스리려는 사람은 천하를 망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천하를 잃을 것이다.”(爲者敗之, 執者失之. 노자, 제29장, 무위)라고 한 것이다.

경제교육적 관점에서 인위와 작위는 어떠할까?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경제를 더욱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국민경제에 대한 간섭은 발전을 유도하기는커녕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큰 손실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정확하지 못한 정보, 시대에 맞지 않는 지식 등에 의한 정부정책들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가 기업가정신을 샘솟게 하고, 민간투자와 기술개발을 적극 자극하여 창업과 투자에 대한 물꼬를 터준 것은 이를 잘 입증한다. 효율성의 극대화가 중시되는 오늘날의 지구촌 경제에서 국민 전체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분야인 환경, 보건, 위생, 산업재해예방, 시설관리 등에는 적절한 규제야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정도를 넘는 지나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草家三間)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이는 큰 손해를 볼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 널리 생각하지 않고 한곳만 집착하여 일을 처리하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조상들의 이러한 예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빈대 잡으려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경우가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김상규, 2018, p. 221).

장자는 인위와 작위는 인간의 상상력, 창의성, 역동성을 해치게 되므로 ‘스스로 그러하도록’, ‘자연 그대로에 충실하도록’ 이들을 적극 배제할 것을 역설했다. <혼돈 칠규의 우화>, <변무의 우화>는 인간적인 유위(有爲)의 행동이 자연의 순박함에 대

한 파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유가를 빗대놓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서, 속박하는 어떤 형식도 거부하는 장자의 걸작이다. 그것은 무위자연에 너무나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인위와 작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상상력·창의성·역동성이 더욱 강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상상력·창의성·역동성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와 여러 장벽들은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2천 3백여 년의 긴 세월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인위(人爲)와 작위(作爲)는 적극 비판·배제하고 ‘작은 정부론’을 지향한 장자의 인위(人爲)와 작위(作爲) 배제의 경제교육적 검토는 각종 규제와 온갖 장벽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그 시사점에 매우 크다 하겠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자가 살았던 기원전 4세기는 전쟁과 살육,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대쟁(大爭)의 전국시대였다. 그의 고향인 송나라는 옛날부터 4전지(四戰之地)라고 불렸을 만큼 사방으로 적을 맞아 싸워야 했고, 사방으로부터 전화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약한 나라가 겪는 가혹한 현실을 체감하면서 현실에 대한 강한 회의와 유가의 인위(人爲)와 작위(作爲)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노자의 도(道) 사상을 이어받아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역설함은 물론 이를 체계화하여 여러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의 사상과 경제교육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자는 ‘도(道)’ ‘본성(本性)’ ‘무위(無爲)’ 등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자연친화(自然親和)’ ‘시장친화(市場親和)’의 시장경제를 역설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주도의 경제 운용이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바,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창조적 자유사상에서, 그는 노자의 생각을 이어받아 자연으로 돌아갈 것과 무(無)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면서 자유 없는 상황 속의 자유, 부자유의 자유를 필사적으로 추구했다. 이것은 무한경쟁·무국경의 지구촌 시대, 상상력과 창의성이 최고조로 요구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장자의 사유의 창조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적용·검토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또 혁신의 창조적

자유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일체의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무심한 상태에서 자신(아)을 잊어버릴 때, 무심망야(無心忘我)의 심경을 터득하여 천지자연에 순응하여 신기(神技)를 터득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것은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리심으로 여래를 보는 해탈의 경지이다. 이러한 혁신의 창조적 자유는 기술진보의 모체가 되고, 생산성 향상과 연계되며, 경제성장 및 발전의 촉진제가 된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빅 데이터·사물인터넷(IoT)·무인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큰 변혁기를 맞고 있으므로, 장자의 혁신의 창조적 자유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적용·검토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규제 배제의 경제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장자는 인위(人爲)를 적극 비판하고 배제할 것을 역설했다. 왜냐하면 인위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 인공을 의미하며, 자연·천연·천위(天爲)와 상반되며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도리에 어긋나고 인간의 독단적인 지혜 따위가 판을 치며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획일적인 사회를 혐오했으며, 설혹 어쩔 수 없이 천하에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경우에도 인지(人智)를 배격하고 무위(無爲)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무위자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법률이나 도덕규범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거기에 꿰맞추려는 유위(有爲)의 정치를 배격한다. 왜냐하면 마음먹고 벌인 짓이나 행동인 작위(作爲)가 그가 적극 강조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혼돈 칠규의 우화>, <변무의 우화>를 통해 본성을 속박하는 어떤 형식도 거부하고 ‘무위자연’을 제창했는데, 자정능력을 초월하는 공해·지진·화산폭발·대홍수·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및 지구촌 경제에 대해 인위와 작위 배제의 경제교육적 적용·검토는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의 장자의 사상 분석과 경제교육적 시사점 탐색은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 및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의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상규(2017), 민요와 경제학의 만남, 서울 : 이모션북스.
_____(2018), 속담 먹고 경제 잡고, 서울 : 공동체출판사.
노자, 도덕경, 제1장, 체도(體道).
_____, 도덕경, 제 8장, 역성(易性).
_____, 도덕경, 제19장, 환순(還淳).
_____, 도덕경, 제29장, 무위(無爲).
_____, 도덕경, 제37장, 위정(爲政).
_____, 도덕경, 제73장, 임위(任爲).
_____, 도덕경, 제81장, 현질(顯質).
_____, 도덕경, 제57장, 순풍(淳風).
사마천 저, 사기(史記), 노장신한열전(老莊申韓列傳).
_____, 저, 김원중 역(2018), 사기열전(史記列傳) ①, 서울 : 민음사.
오경웅 저(1967), 류시화 역(2012), 선(禪)의 황금시대, 서울: 경서원.
장자 저(BC 290년 경), 안동립 역주(1997), 장자, 서울 : 현암사.
장자(BC 290년 경), 장자, 내편, 제1편, 소요유(逍遙遊).
_____(BC 290년 경), 장자, 내편, 제2편, 제물론(齊物論), 제2장, 제10장, 제13장, 제32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내편, 제3편, 양생주(養生主), 제3장, 제4장, 제23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내편, 제5편, 덕충부(德充符), 제19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내편, 제7편, 응제왕(應帝王), 제3장, 제4장, 제12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2편, 제14편, 천운(天運), 제10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8편, 변무(駢拇), 제3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11편, 재유(在宥), 제1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13편, 천도(天道), 제2장, 제4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19편, 달생(達生), 제4장, 제11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20편, 산목(山木), 제6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22편, 지북유(知北遊), 제4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외편, 제27편, 추수(秋水), 제17장.
_____(BC 290년 경), 장자, 잡편, 제31편, 어부((漁父), 제6장, 제8장.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W. Strahan and T. Cadell,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

Economic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Thought of Chuang-tzu (莊子)

Sang-kyu Kim*

This study analyzes the thought of Chuang-tzu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nd seeks economic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as an alternative to cope with the era of uncertainty, in which both economic philosophy and the validity of principle are criticized. His thought is still valuable because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ancient China, in which his thought proved its real worth.

Thereby, this interdisciplinary study, which re-examines the thought of Chuang-tzu with plenty of humanistic imagination from a modern economic point of view is very important.

Key words: Uncertainty, Thought of Chuang-tzu, Economic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Interdisciplinary research

원고접수: 2020년 11월 02일

심사일: 2020년 11월 27일 ~ 2020년 12월 21일

게재확정: 2020년 12월 21일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kkim@dnue.ac.kr)